

“계엄 절대 정당화 될수 없어…폭력성 고발하고 싶었다”



이대흠 시인 시선집 ‘동그라미’
“5·18의 신화적 해석 등 담겨”
장흥 출신…고향 문학정신 계승



“계엄령이 선포되던 날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잠깐 눈을 떴는데 계엄령 선포 장면이 방영되고 있었죠.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이후 국회로 군인들이 침투하는 장면은 매우 비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하늘에서는 헬기가 날고, 총을 든 군인들이 유리창을 부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렵지 않게 1980년 5월의 광주를 떠올렸습니다.”

이대흠 시인은 지난해 12월 3일 밤, TV에서 방영되던 장면을 잊을 수 없다. 80년 5월 광주의 상흔을 기억하고 있는 이들에게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표는 트라우마 그 자체였다.

이 시인은 “자국의 군대가 자국민을 죽이는 비극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공포가 엄습해왔다”고 했다.

최근 시선집 ‘동그라미’ (문학들)를 펴낸 장흥 출신 이대흠 시인. ‘문학들 시선집 1번’으로 출간된 작품은 절판된 시집 중 주목할 만한 시집을 다시 펴내는 복간본 성격を 띤다. 시선집 ‘동그라미’는 시인의 두 번째 시집 ‘상처가 나를 살린다’와 세 번째 시집 ‘물속의 불’에서 시를 추렸다.

시선집 출간 소식을 전해온 그는 “자기만 옳다는 자가 군인들을 동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다”며 “더더욱 놀라운 것은

진영논리로 무장한 채 그런 계엄 세력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라고 작품의 상황에 대한 견해를 드러냈다.

그동안 시인은 남도 정서에 기반한 작품 활동을 펼쳐왔다. 유장한 가락과 맛물리는 정치한 시어는 독자들에게 읽는 맛을 선사했다.

문학(文鄕)의 고장 장흥에서 나고 자란 그에게 고(故) 이정준과 송기숙 작가를 비롯해 한승원, 이승우 작가로 이어지는 장흥문학의 저력은 크나큰 자산이다. “지난해 노벨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도 태어난 곳은 광주이지만 장흥에서 호적을 올렸다”며 “그 이름자가 처음 적힌 곳은 장흥”이라는 말에서 장흥에 대한 자부심이 읽혔다.

한국 문학사에서 장흥이 차지하는 의미와 성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에 따르면 기라성 같은 문인들이 배출된 것은 동서양 사상이 함께 융성했던 데서 찾을 수 있다.

“동양의 사상이랄 수 있는 것은 ‘동학’이고 서양의 사상은 ‘기독교’입니다. 알려진 대로 장흥 동학은 뿌리가 아주 깊죠. 동시에 장흥에는 100년 이상된 교회와 네 군데가 있어요. 두 줄기의 사상적 부딪힘과 융합이 이루어졌던 곳이 장흥입니다.”

1894년 동학이 일어났을 때 장흥은 최후 격전지였던 곳이기도 하다. 최후 전투지는 “끝까지 싸운다”는 것, ‘끝까지 가본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

다”며 “그런 근성의 관점에서 보면 장흥 출신 문인들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 끝까지 성심을 다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작품집은 크게 두 주제를 담고 있다. 하나는 5·18의 신화적 해석이며 다른 하나는 공동체를 지탱하게 하는 노래(시)의 힘을 다뤘다.

광주 5월을 신화적으로 접근한 시는 왜곡하고 상처를 덧찍우는 것들에 대한 저항이다.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5월 폄훼세력에 대한 고발이다.

“총소리가 울렸다 그것은 폭도를 죽이는 소리/ 총소리가 울렸다 그것은 간첩을 잡는 소리”(‘나는 야혁명군 새 나라 건설의 전사-위대한 탄생 4’)

“이제 보니 간첩이라는 말은/ 적이 보내 내정을 염탐하는 자가 아니구나/ 민중들의 가슴에/ 수신기 대고 청진기 대고/ 상처를 도청하는 자로구나”(‘이제 보니-붉은 심장을 가진 나무 6’)

다른 시들에서 감지되는 것은 관속화된 폭력, 가부장적인 폭력성에 대한 전작이다. 5월을 모티브로 하고 있지만 오늘의 계엄시국으로까지 확대해 들여다보게 한다. “현대사의 상처인 5·18과 4·3이 그러하고, 히틀러의 나치가 비틀어진 애국주의의 산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에서 ‘시인은 잠수함 속의 토끼’라는 게오르크의 발언이 오버랩됐다.

“계엄을 옹호하는 건 어떤 논리로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스팔트에서 계엄 옹호를 버젓이 외치는 뉴스를 보면서 계엄은 총을 쏜 자들이 선정한 사람들을 언제든 죽일 수 있다는 공포심을 갖게 했어요. 이번 시집을 묶게 된 계기입니다.”

또 다른 주제의 작품들 “언어를 최소화하려 고민하고 썼던 시”는 낭만성, 서정성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 시인의 장기간 유장한 가락, 언어 축약에서 발휘되는 세련된 수사는 시의 묘미를 선사한다.

시인은 요즘 하루하루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낮에는 직장에 다니고 밤에는 강의를 다닌다”며 “강의 요청이 많아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웃었다. “연구하고 쓰고 가르치는 일에 더욱 정진하겠다”는 말이 믿음직스럽게 다가온다.

한편 이 시인은 1994년 ‘장작과비행’으로 문단에 나왔으며 시집 ‘눈물 속에는 고래가 산다’ 등 다수의 시집을 펴냈다. 전상병시문학상을 비롯해 조태일문학상, 현대시동인상, 애지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최향 개인전, 14~23일 이화갤러리

‘파꽃

그 자유로움에 대하여’

오래 전 봤던 최향 작가의 ‘파꽃’은 싱그러움과 생명력이 넘쳤다. 푸른 바다, 푸른 들판을 배경으로 펼쳐진 파꽃의 이미지는 힐링 그 자체였다. 마치 파꽃이 이편을 향해 말을 걸어오는 듯한 작각이 들었다. 자연의 감성이 오롯이 화폭에 투영된 그림은 하나의 절경으로 다가왔다.

최향 작가의 ‘파꽃’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동구 예술거리 이화갤러리에서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펼쳐지는 전시에서는 다른 버전의 파꽃을 볼 수 있다.

‘파꽃-그 자유로움에 대하여’는 주제만큼이나 자유롭게 상상의 경계를 넘나든다. 지난 2020년 이후 올해까지 작업한 20여 점 작품이 출품됐다. 특히 이번 33회 개인전은 대학 졸업(홍익대 미대) 50주년을 맞아 열린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반백년 세월 창작의 길을 걸은 작가에게 50년은 지나온 시간을 갈무리하고 새로운 시간을 향해 나아가는 분기점이다.

전시를 앞두고 만난 최 작가는 “숨차게 달려왔는데 어느 날 마음이 다운되는 느낌이 들었다. 그



림을 놔두고 한동안 무기력에 빠져 있었다”며 “그러나 문득 ‘나를 정전하고 바라보고 격려하자’는 생각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화가가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번 전시는 그런 나를 얹매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함의한다”고 덧붙였다.

굳이 ‘자유’를 말하지 않아도 작품은 자유의 분위기를 물씬 발한다. 예전의 ‘파꽃’이 노랑, 파랑 등 원색 위주였다면 이번 작품은 무채색을 많이 활용했다. 작가에 따르면 광주전 전시 앞서 열린 서울전(G&J 갤러리)에서 파스텔톤 반응이 좋았다.

무채색에 가까운 색감, 정형성을 탈피한 이미지는 ‘변산’을 함의한다. 경계를 넘고자 하는 작가의 내적 열망이 파꽃에 투사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무한한 변주 가능성을 노정한다.

한편 최 작가는 광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독일, 일본, 스위스 등에서 다수 개인전을 열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지금 구매하세요:쇼핑의 음모’

‘지구의 날 기념 월간행사-환경다큐 상영회’ 오늘 한결음가게

4월 22일 지구의날을 맞아 광주에서 영화 상영회가 열린다. 기후 위기의 마지막 선 1.5도를 넘기고 만 올해, 시민들이 모여 함께 지구를 위한 한결음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55주년지구의날광주행사위원회(위원회)는 3일 오후 7시 광주시 동구 충장로 한결음가게에서 ‘지구의 날 기념 월간행사-환경다큐 상영회’를 진행한다. 선착순 20명, 참가비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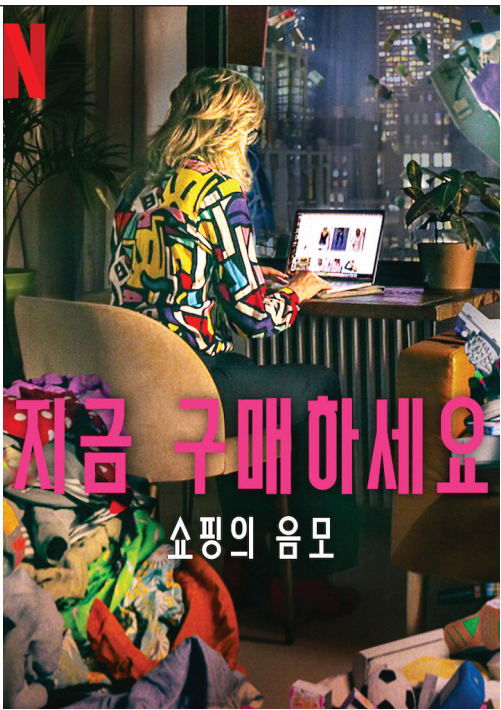
참석자들은 영화를 함께 보고 함께 환경과 소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상영회에는 참석자들을 위한 비건 김밥과 음료 등이 준비된다. 종이컵 등 일회용품이 제공되지 않아 개인 텀블러를 지참해야 한다.

상영되는 영화는 ‘지금 구매하세요: 쇼핑의 음모’로, 지난해 개봉한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다. “당신이 사는 그 물건, 정말 필요한가요?”라고 질

문을 던지는 영화는 기업의 전력이 실생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불필요한 소비가 어떻게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배터리 사용 기간에 따라 의도적으로 CPU 성능을 낮추고, 한달도 안되어 유행이 바뀌는 ‘마이크로 패션 트렌드’... 기업의 이윤 추구에 의해 형성된 과잉생산과 과잉소비의 사이클. 영화는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 쌓인 거대한 ‘헌 옷 무덤’을 통해 우리가 외면했던 소비의 이면을 보여준다.

행사를 주최한 위원회 관계자는 “2015년 파리 협정 당시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지만, 지난해 결국 1.55도를 넘고 말았다”며 “함께 영화를 보며 쉽고 편리한 소비가 어떻게 세



상을 바꾸고 있는지, 우리가 외면해온 소비의 이면에 대해 이야기 할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시 남구 동구 빛고을시민문화관 1층 전시실에서 관람객들이 박성호 작가의 ‘철 그리고?’ 정크아트 전시를 감상하고 있다. <광주문화재단 제공>

새단장 빛고을시민문화관 첫 전시

5일까지 박성호 ‘철 그리고?’ 전

빛고을시민문화관 1층이 전시 공간으로 리뉴얼해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작품을 선보일 새로운 전시 공간이 마련된 만큼 지역 작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희웅)은 광주시 남구 동구 빛고을시민문화관 1층 전시실을 재개관한다.

리뉴얼된 1층 개방형 전시공간은 185.46㎡ 규모로 총고 3.8m, 천정고 3.6m다. 전시와이어 50개(안전하중 15kg)와 조도 조절이 가능한 전시 조명기 100개가 구비돼 다양한 작품 전시가 가능하다. 대관비용은 설치 및 철거 기간을 포함해 하루 3만원이며 대관 접수기간은 4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편 재개관 이후 올해 첫번째 전시로 박성호 작가의 ‘철 그리고?’ 정크아트 전시가 오는 5월까지 열린다.

문화재단 직원이기도 한 박 작가는 낮에는 전기 시설관리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퇴근 후에는 작품에 몰두해왔다. 특히 양림동 팬관마을에 소화를 활용한 정크아트를 설치하는 등 꾸준한 작품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고철, 나무판자, 폐전선 등 폐자재가 사람, 물고기, 조류 등 30여점으로 재탄생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박 작가는 “이번 전시는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아름다운 작품으로 탄생해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의미에 초점을 맞췄다”며 “재단장한 빛고을시민문화관 전시실이 저와 같은 작가들의 창작활동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제22회 영랑시문학상’ 수상자에 조용미 시인

수상시집 ‘초록의 어두운 부분’

한국 현대시의 거장 김영랑의 문학적 유산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제22회 영랑시문학상’ 수상자로 조용미(사진) 시인이 선정됐다. 수상시집은 ‘초록의 어두운 부분’이며 상금은 3000만원.

강진군은 ‘22회 영랑시문학상’에 조용미 시인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상시집은 고전의 개념을 옛 미학이나 문헌이 아닌 우주의 질서라는 확대된 개념에서 시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평가된다.

심사위원들은 “조용미의 시는 전통적 정서와 현

대적 감각을 접목하며, 시의 형식과 리듬을 새롭게 제안하는 긴장감 속에서 고전미와 현대미를 오가는 독창적인 성취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특히 색채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은 영랑의 ‘모란’과 같은 여운을 남기며, 내면의 정서와 연계되는 시적 깊이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조용미 시인은 “시를 쓰는 참뜻은 고기잡이보다 세상 생각을 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한 발 더 들어가는 것”이라며 “영랑의 시처럼 아름다운 우리말의 리듬과 정서를 고민하며, 앞으로도 시를 통해 이 세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해 나가고 싶다”고 전했다.



경북 고령 출신인 조 시인은 1990년 ‘한결문학’에 ‘정어는 가시가 많아’ 등을 발표하며 등단했다. 이후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기억의 형상’, ‘당신의 아름다움’ 등 다수의 시집과 산문집을 출간했다. 김달진문학상, 김준성문학상, 고산문학대상, 목월문학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영랑시문학상은 그동안 시문학의 맥을 이어가는 시인들을 발굴하고 격려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시상식은 오는 18일 강진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